

# “부패한 이너서클 차단…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검토  
‘생산적 금융’ 전환정책의 연장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

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

상 겹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 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아러러아러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l115@metroseoul.co.kr



metro

## 스타벅스 ‘조롱 마케팅’… 제휴 카드사 불똥

삼성·우리·신한 스타벅스와 제휴 무신사도, 삼성·하나카드와 협약 “이미 계약 끝내… 파기는 어려워 논란 확산, 프로모션 축소 가능성”

스타벅스에 이어 무신사까지 ‘조롱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도 불똥이 튀고 있다. 대형 유통 기업들의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중성 고객 확보를 노렸던 카드사들의 선택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무신사에서 5·18 민주항쟁,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 문구 논란으로 고객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이들과 제휴한 카드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티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 칭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무신사는 7년 전 공개했던 양말 광고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

이 일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카드사 여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우리카드가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와도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으며 카드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도 대표적인 카드사 제휴 유통 기업 중 하나다. 무신사는 지난달 삼성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휴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무신사와 손잡고 이달 ‘하나나라사랑 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페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드업계는 잇달은 유통 기업의 리스크가 제휴카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무신사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불매에 동참한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고 싶다면 그냥 안 가면 된다” 등의 글과 함께 스

타벅스 티블러를 버리거나 파괴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신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전 트위터, X)에서 무신사 광고를 게시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며 “돈이 마구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는 이미 체결된 PLCC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더 고심이 깊다. 카드사가 먼저 유통사를 상대로 PLCC 계약을 파기한 선례가 없을 뿐더러, 계약 파기 조건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 논란만으로 조치가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무협약을 다 맺어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불매운동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프로모션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고객 상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0.31%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상승 부추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한 이후 인기 지역 위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며 호가가 뛰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률로는 전주(0.28%)보다 0.03%포인트(p) 높아져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주(0.31%)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앞두고 최근 3주간 0.14~0.15% 수준에서 회복해오다 전주 0.28%로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 옴폭을 더 키웠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수요가 집중된 정주여건 양호·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흔해지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통계 공표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성북구(0.54%→0.49%)와 종로구(0.36%→0.32%)가 이번 주에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 상승률의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뉴시스

## 장기보험 부지급률 1.3%… 車보험의 3배

질병·상해 등 상품구조에서 차이  
삼성·현대 등 대형사 업계 평균수준  
신한EZ 3.11%, 손보사 중 가장 높아

보험금 지급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주목받고 있다. 민원 건수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결과라면, 부지급률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실제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과정의 마찰을 살펴볼 수 있는 보조 지표로 꼽힌다.

21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평균 부지급률은 1.3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부지급률은 0.45%였다. 단순 비교하면 장기보험 부지급률이 자동차보험의 약 3배 수준인 셈이다.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건수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의 비율이다. 다만 해당 공시는 전체 보유계약이 아니라 직전 3개 회계연도 신계약 중 해당 반기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고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보험사별 수치를 단순히 전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성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장기보험의 부지급률이 자동차보험보다 높은 것은 상품 구조의 차이가 크다. 장기보험은 질병·상해·건강보험 등 약관 해석과 지급 요건 판단이 복잡한 상품이 많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과 손해 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돼 있어 부지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의 장기보험 부지급률은 삼성화재 1.30%, 현대해상 1.28%, KB손해보험 1.33%, DB손해보험 1.33%, 메리츠화재 1.39% 등으로 업계 평균 인덱스에 분포했다.

일부 중소·디지털 손보사는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보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 부지급률 관련 이미지.

험 부지급률은 3.11%로 공시 손보사 중 가장 높았다. 라이온손보는 1.96%, 하나손보는 1.83%, AXA손보는 1.72%를 기록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장기보험 업계 평균 청구 이후 해지비용은 0.19%였다. 자동차보험은 0.01%에 그쳤다. 청구 이후 해지비용은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청구 이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등이 발생한 비율이다. 보험금 청구가 단순 지급 심사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나 민원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보험사별로는 NH농협손보 1.35%, 신한EZ손보 1.21%, 하나손보 1.06% 등 일부 보험사가 평균을 웃돌았다. 대형 손보사는 삼성화재 0.15%, 현대해상 0.16%, KB손보 0.19%, DB손보 0.19%, 메리츠화재 0.18% 수준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가입 시점에 이해한 보장 범위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약관 판단이 다를 때 발생한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소비자는 가입 당시 설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간극이 반복되면 부지급은 단순 심사 결과가 아니라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김주형 기자 gh471@